

정수를 모로논일이 귀막히지안이 혼가

오나 곤욕을 보기로 이에서 더 보겠느냐 너가 괴를 쓰고 살았다가 괴어히가삼이
시원하게 설치를 하야 보고야 말겠다

그러나 너가 이곳에 오리었다는 박은날이면 더 놀들이 또을 나와 뒤질터이니
더듬더듬 괴여셔라도 더산넘어가야 할것다

하고 비바람을 불게하고 할날에 다른듯이 높은산을 괴여넘어가기를 시작할것
더러

사름이악이나면 무서운것도 업난법이라 평시 갖으면 그산을 넘어가기 귀녕 그
산속에 혼조만잇셔도 한이업시 무서워셔 감히호말스즈국을 떼여노치를 못할얏
슬 박씨라셔 엇의가압흔져 엇의가쳐여젧는지 모르고 무릅을 벗겨드린다 말바
당을 썰인다 그산을 너머가니 괴운이시진하야 쌍에가필셔 주저안져 스면을 삼
혀보니 마즌편산밧 오막살이집에서 등잔불이 반작반작 보이는지라 혼조싱각
항기를

인간구제는 인간이 혼다구 너가 집을 츠져드러가 밥승룡이라도 좀엇어먹고날
리밖거든나서셔 천당을 차더 가는것이 올것다

하고 보이는 등불을 차져가는데 산스골이라 하는디는 이편에서 저편을 보면 지
척곳다가도 날짐성모양으로 훌쩍 놀아가지는 못하고 김흔 구렁을 다 뱉바 건너

가려면 여간 멀지를 안이 혼법이라 그산너머오던 힘에서 못지안케 고성을 하야 간
신히 그집문전을 당도하니 단숨간집에 올라리는다 쓰러지고 썩쳐 문을 달엇는디
무어을 하는지 사름드리 그썩쳐지잠을 아니자고 불을 꺼노코 두런두런리야이를
하는지라 박씨가 지삼쥬쳐쥬쳐다가 말지 못하야 살리문을 찌꺼 찌꺼 혼들며사
름살니오 사름살니오 안으로셔

여보저게 무슨 소리오

글세이 밤중에 누가와셔 그리홀가 적습이리쥬오 님교좁나아가보게 예그나
아가기는 어디를나아가오 이리케일괴가 축축하닛가 독갑이가 작란을 하는것

이지

별소리를 다하고 독갑이라 하는것이 다무엇이오 너가에서 독십여년을 살아도
헛것의 불 혼번도 본적이업소

그리도 고집세고 나아가지말아오 이런산설에 난 호랑이도 스름에 소리를 할야
불너너기를 일슈환담디다

여보아모리 녀편네기로 그런어림업는말을 두번도마오 호랑이가 무슨스름
애소리를 혼담말이오

하며 현집신쌍을 차저설고 분쥬히마쥬나와 살입문틈으로 먼저기웃기웃너다보
며

누가 이 침침철철에 와 계시오
박씨가 간신히 나오는 음성으로

죽게 된 인성을 좀 살려 주시오

주안로옹이 문을 열품 못 열고 주저 주저하다가

(주) 더 관절 누구오 아마 부인에게 성음인가 본데 우리 집에는 이러케 츠즈올 부인

이 업소 집을 잘 못 처졌다 보오

(박) 누구는 츠즈말씀을 것이니 문부터 좀 열여 주시오

(주) 글세 누군데 작구문만 열는 말이오

항며 말지 못 항야 문을 열으니 박씨가 불고 염치 항고 그 집안으로 드러 갔더라

주안로옹은 우두커니 섰고 마누라는 등잔불을 도도고 켜든 눈을 썩썩 부뵈며

예구 그 아씨 앞 전도 하라 저러케 섰 혼자 아씨가 이 밤중에 웬 일일사 여보 엇의사

논 아씨 인디 너 짐을 츠자게시오 너 짐을 본리 짐작 할 십더 닛가

박씨가 눈물이 비오듯 항며

(박) 이디 이 뒤 인지도 몰으고 급한 일이 잇서 불고 염치 항고 드러 왔스니 죠흔

일 항시 노라고 나를 좀 감초아 주십시오

(마누라) 에그 이상도 하라 무슴일이 그다지 급히서 절 무나 절 무선네가 이 밤에

혼즈나 섰스며 우리 케씩지만 한 집 에다 엇더케 감초아 달나고 할사

로옹감이 마누라를 항 항야 눈짓을 씬 씬 쳐 항야 뒤것으로 불너 디리고 가더니 공론
항는 말이 라

(령) 여보 그 계도 망군이 오구려 우리 감유어 두었다가 넘어사 말갈서 방에게 중
막을 항야 주교 돈 박이나 엇어 습시다

(마) 갈서 방이라 세 옥이 아 버지 말이오

(령) 응 옥이네 말이오

(마) 여보 로옹감도 여든애 이 안아 들 소리 도 항오 그가 홀아비는 되 슬 법히도 천량
이 그득 홀디 장가 들야 면 엇의 식시 가 업서서 하 필도 망군이 들 다려다 산답던 닛

가 후환이나 만 날 갑야 부자 몸 죠심 항노라고 도 망군이 너 편네는 죽으 로 잇서 도

엇지를 안아 홀러 이나 그런 쓸디 적은 생각은 두 번도 말으시오 설악 신아 올 본 닛

가 비도 곱 혼 모 양 업디다 난 성이 불상 항니 먹던 찬 밥이 남아 한 술 먹여 어서 쏙

칩시다 공연이 본부가 뒤를 말바 차쳐 오는 지경이면 우리 오 들 먹 접이 남아 쓰

러 남기 라다

(령) 본부가 알기는 이 밤중에 온 것을 엇지 알고 뒤를 밤 단 말이오 갈서 방이 혼
쳐는 스면서 말을 하도 선을 보면 인물이 모다 무슴에 안이 든다고 되 히다 오져 너

편네를 낮에 보면 으더 홀난지 밤에 얼룩 보기에는 뒤얹 전 혼 걸

(마) 여 업 부기 난 너 평 성 쳐 음 보 앓 소 마 은 뒤 섰 헤 우 손 달이 잇 슬 갑야 그러치

(령) 그러면 그 녀를 들리고 드러온복을 너여 쫓난단 말이오 오먹살이 하나 씌어

넘기는것을 당할세음잡고 일을흔변하야 봄시다그려 말이그런치 설혹제본 부가알고 초저오기로 우리가 썩여닛단말이오 무슨일이잇단말이오 스는직으 로바로말을흔면 되곰압다고 처스들을혈난지도 모름니다 어서가서업난정도 잇는듯이 열녕얼녕하고 밥이나먹여 우스방빈독속에다 썩감추어두오

(마) 그야어렵지안이항지만은 나는그저후탈이잇슬갑아 겁이오구려 잇의밥이 나먹이고 너력을좀무러보고서

마누라가 부억으로드러가 찬밥에물을붓고 열무짐치호보시기를 썩노아 박씨 압해다갓다노으며

위선시장한테 이것이남아 좀조시오

박씨가 공손이그상을밧아 두어술요그호후에 주인마누라가 굴은치는티로으 속훈구석에가 숨어안젼노라니 런후에모진것은잠이라 스지가노곤하야지며 잠 이소로와 그구석에 그티로쓰러져 잠이잠시드러더라

박씨잠든동안에 주인령감이 갈씨에집에를가서 엇더케 설을드러부엇던지 그 든설흔스름이 반쯤밧쳐서 분주불가히 웃웃슬녀여입고 뒤를싸라 그령감에집 으로 간션을흥려오더라

(령) 서방님 그계집을팔모로 쓰더보아도 량반에딛신부갓흔티 무슴일로그모

양으로 나섰는지는알슈업지마는 의인디면항기를 슬여홀러이니 감아니문들 으로 엇보시지 펼쳐너노코 선보듯항실싱각은 말으심시오 그러케보셔서 흡 의항시거든 말슴만항시면 제가웃더케 썩이던지 덕으로되려다 드리오리다

(갈) 아모려나 령감의스대로 흡시다만은 선보듯말고 아모러케항기로 제가그 지경되야셔 무엇이라고 앙탈들흔단말이오 앙탈을흥거든 솜씨조계잡어세여 버리지

(령) 그리로 그러치안이흔닌다 두말슴말으시고 이하으니 옛준대로만항셔오 너편네쇼견과 고집이라노것은 디쇼롭지안은 일에로 죽을동살동 압일은손 툭반머리만치도 싱각지안이항고 괴어히제모음티로 항야보고야 고만두는것 이 흥가지특별흔 성품이올시다 그런즉션을보논이 마나니 설왕설리를항다

가 붓그립던지 성가시립던지 실타고디썩는날이면 죽도밤도다를이고 그안 이씩항오닛가

(갈) 고만두게 말을다안이항야도 다알겟네 어서가기는항세

(령) 아모렘 서방님께셔 어떤항시게슴닛가 그러나밤셔도록 오노라고 잠을못 잤던지 로곤히셔정신모로고 자는양을보고왔 습는디 그동안셔기는항야는지 알슈업습니다

(갈) 누어자면 셔기를기다려보지 무엇이걱정될것잇나

박씨가 잠간잠이 드렸다 가 삼짱 놀나서 나 날이 임의 밝았는디 마루에서 슈군슈군 하는 소리를 지날스결에 드른즉 분명즈기에 이약이라 속마음으로

이 슈인은 늙은늑의 썩인가 보던데 웬스름이 왔길니 내리약을 더러케 호호 하고 여전의 자는 체하고 조세듯노라니 슈인령감이 마누라를 부르더니

(령) 마누라 그녀편네가 아마 그저 짐이 드렸지
(마) 그저 자나 보오 그리그량반이 무엇이 라고 호심더닛가

(령) 무엇이 라는 무엇이라 호호셔 당신눈으로 선을 보아 합의 만호면 디러가
겟다코 오셨는디

서방님이리로 올라안즈심시오 여보마누라 시령에 언천즈리 호입 이리로 쓰너
다설유

(갈) 자리는 설아 무엇이냐 곧 갈러인디 그런데 그녀편네가 잇의 잇나 좀보세그
러

(령) 지금더우스 방에서 자나 보이다 이리로 오심시오
박씨가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막혀 혼즈말로

에그이 일을 엿지 호연호호가 그욕를 면호노라고 죽을번살번 고성을 호며 간신
히온다는것이 이몸슬구덩이에가 또 째졌스니 이런그막힐 일이잇나 당장더

놈이 드러오는 모양이니 자는 데 호고 도라누어 거동을 보아 무슨 틈을 타던지 죽

어모로거나 몸을 피호던지 량단에 호리라

호고 독을안쇼 박사들아누어 자는 모양을 호노라니 그자가 슈인령감을 압세고
드리와 이리세웃더리세웃 한참호더니 무슨의단이 잇는듯이 입맛을 현히다시고

슈인과 쯤치 박곳으로 나가거늘 박씨가 더자들나아가 무엇이 라고 짓거리나
또엿듯노라니

(령) 서방님 천히 보시닛가 제말이과히 거짓말이안입지요

(갈) 응듯던말과 다르지안이호나 자두말을것업시 내집으로 곧되려오게

(령) 녀러말으심시오 어서 호호시면 아참밥이나 먹여 디리고 가오리다
(갈) 안이 그러치안이호지 쇠설도 단결에센다고 언제야 참먹고잇셔 밥걱정은
말고 곧되려만오게

그자가 무엇이 그리 총총호는지 그말을 맞치고 분슈하나아간이 령감이 마누라를
불으더니

(령) 마누라 더양반이 눈에박사드는지 어서 디리고 오라는데 마누라드러가셔
고만자라고셔여셔 우리집에 오리지안이호야 큰일이나겟다고 헛풍을치고우
리집과 한집안처럼 지는 집으로 잠시간 피신을 호라 권호야 디리고 그딕으

로가오 나도 디문을 것으로 잠그고 가리다
마누라가 웃방으로드러와 것헤와안디나 박씨의 억지를 호들호들호며

(마) 여보아씨 고만세오 큰일났소 어서이러나오

(박)

(마) 어서세여오
함며 박씨를절네절네흔드니 박씨가 말지못하야 이러나안드며

에그벌셔복앗네

마누라가 흐들갑시럽게

복앗는지 무엇인지 큰일났소

박씨가 벌셔짐작하고 짐짓

(박) 무슨큰일아났셔오

(마) 아씨가 누구신지 알지못하고 밤중에 사람을살녀달나닛가 스정아씨히셔

문을열어드린일인디 지금소문을드르닛가 웬사람들이 더아리동리에를 드러

와셔 쌍그리집뒤짐을하야 올라온다니 얼마안이있다가 우리집에도와셔뒤질

터이니 이일을장초엇저하면 도란말이오

(박) 이구석에 색숨어잇스면 누가알며 나를그러케 차져올사람도업스죽 필경

풍설이니 아모념려마르시오

(마) 차져올사람이 업다는것이 다무엇이오 우리령감이 아리스동리를 가섯다

가 천히목도를하셔오 오섯던데 여보여러말말고 니집에잇지말고 어서다른

곳으로가시오

(박) 갈제가더리도 귀왕덕에를 드러왔스니 슈일묵어 숨이나돌러가지고 초초

갈터이니 용셔를좀하야주시오

(마) 용셔라는것이 다무엇이오 인제보닛가 럽치가아조업소그려 모로난집에와

셔 두닉의짐을못지게 하야가며 하로스밤잘 피신하얏스면 감스흔줄모로고

도로혀 떼비스를못하게 이케엇의단데업는 슈쟈이오 공연히 별소리말고 어서

나가오 산스골에서 감조농스나하야먹고 사는 두흔은이를 웨못살게 하랴고

성예를쓰고 안이가려들사

여보보아하니 갈곳은업고 스정아씨흔모양이니 내가도흔도리를 그려쳐줄터

인즉그터로하오

(박) 말씀을하시면 드러보아셔 좌우간홀터이니 그려쳐주시오

(마) 말씀을드르시오 세상인심이 엇더나하면 넘어지는나모는 떼여미는세월

이라 우리닉외가 이려케간구하게사닛가 된놈안이되놈 무단히업슈히덕이고

아못조로 못사는것을 저의잘사는것보다 더즈미잇게녀여셔 렬쫓만홀터이지만

아도 말성을만드논디 아씨닉집에와 피신했것이저의게 피육불관홀터이지만

은 필경언의몸슬놈이 아씨찾는사람곳맛나면 말성을만드려 봉화를들고말터

이니 그안이싸흔일이오 내집이널적하야 으스흔구석이잇거나 인심이나그러

치안이 좋으면 혼달이고 두달이고 아씨를 내 집에 잇게 할것소만은 아모리 생각 할
야도 그리 할슈는 업고 혼가지 된슈는 니 집은 상사름의 집이닛가 만만하게 보
아니덕 돌입를 임의로 할터이니

쥬먹으든 혼량반님의 덕에는 언감심심 감히 뒤지지를 못올터 인즉 이 건너 말
갈서방님 덕으로 가셔 은신을 하면 엇더할것소 그 덕은 우리가 상년덕처럼 천
절히 단이논터 인즉 아씨 사정을 말씀코할면 우리 집에 있나니 보다 몇갑절 낮게
잘디접할실지니 그 덕으로 어서 갑시다

(박) 쥬인말씀은 곱압소만은 오날호로만 덕에 더 잇게 할야 쥬시면 리일은 아모
디로던지 갈터이온즉 귀티여 모로논대 신세를 또질것이 업스오니 사름을 구
제할신싯해 아쥬구제 할야 쥬시오

(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오 니가 이세사지 노익의듯 실익의듯 할야도 못아라드
릿단말이오 알고도 괴어히 니집기동썰리가 것구로서는것을 보고말작당이오
에니잉 인복은 나처럼 업는사름은 다시 업서 일스건힘드려 말을 할닛가 고집
을세여 남은결단이나거니 도모지관계를 안이 할려드니 그런의리인정이 엇
의잇단말이오 서스대 할면 우리가 못살게 될판에 무엇도라 볼것이 잇겟소 정
안이 간다면 축동밧그로 쓸어 다라도 바리겟소
박씨가 일하위급 할닛가 간신이 괴엄그엄이러나며

여보 쓸러너 버릴것은 업소 정이러 할터이면 니가 몇거름을 못가져 죽더리도 내
발로내가 갈것이니 아모 녀말으시오

향고문설쥬를 못잡고 간신히이러나 사리문밧글나서며 머리를 조하 인스를 혼다
(박) 덕신세를 입어 하로밤을 잘자고 가오니 감스무디 할야이다
(마) 신세를 알면 더 모양으로 고집을 세일나 구가거나 말거나 생각티로 할지
할며 얼골빛이 도쳐 못 할야지며 제서방을 불은다

령감 령감
령감아 밧밧방에서 집신날을 쇠다가

(령) 웨그리 할야

(마) 이런일도 잇소

(령) 무슨일말이오

(마) 우리가 무슨덕 보자고 사름구제는 혼것이 안이지마은

(령) 그리셔

(마) 내집은 석바라져서 은신을곳이 업고 니외가 업서 아모나 함부루 드나드
니 더 건너 갈서방님 덕에 가 아직 잇는것이 엇더 할나 농앗더니 바로노히셔 지
금저 모양으로 아모디로나 지긋성각티로 간다고 나선다오 응그런의리부동할
사름은 당초에 문전에 드려세지를 마라야 할난것을 공연히 령감이 고집 할야척

스마종호듯 쓰으러 드리더니
우리아 등이 더운 일인가 비가 불은 일인가 즈그 위하야 혼말인디 그러케 할 것이
무엇인고

령감이 무슨 꼭 절로 열이상 투똥사지나던지

(령) 웨이리 짓거려싸오 사물이런디만상다르지 임즈음과 썩마지란데가 엇
의잇단말이오 우리는쥬인에 도리만다흔이상에 가지안아세상업기로 우리 잘
못야야 무엇잇소호며 박씨를향하야

(령) 가신다는것을 말니지는안소마은 그러케몸을피히달나고 드러올제논언
제고 잘숨어잇도록하야주마흔즉 듯지안코간다고나선니 진소의 전하심후하
심(眞所謂前心後心)이오

(박) 이사름구제하야주신은덕은 티산갓스오나 바로덕에나더잇스면 모로건이
와 이설을향하야가지고 다른집으로또가기는 마음에슬인즉 가다가죽더리도가
논슈밧게 또닛습닛가

(령) 그러호겝소. 아뭇조록 잘가셔피화를호시오

호고박씨부인 나아가는것을 본데도안이호고 잇다가 샷갓을집어머리에다 품
뒤집어쓰고 쇠스길로써져서 분슈히 건너티촌으로가더라
박씨는가슴에서 분기가 치밀어올나오는것을 억지로참고

그집문압키울을세고 부르스터 렷헤여진발을 억지로살고 나아오노라니 올제는
뒤산을 넘어노라고 세상다시업는 산협이라 인적부도별유런디(人跡不到別有
天地)로만알앗더니 급기압길로 나오란즉 불과두어마장썩 거르닛가 곳큰길이
라 오고가는 형인이 렷락부절하야 차마붓그러나설슈가업서서 거름을도로뒤
로움치러지며

에구머니 예가바로큰길일세 이썩락신을호고 엇의를나서나 발이아모리더
압흐더리도 더폴습으로가셔 몸을숨어잇다가 히만저거던 가보겝다

가기는 동서방향도모르며 엇의를가나 내가기를쓰고 살며는무슨 시원흔경
상을 보겝느냐 이썩사지더러운육안이본것만 텃헝이니 전작죽어 세상을잇
논것이상책이다

호고 초마신을떼여 한똥은나모가지에다 띠아달고 한똥으로 즈그의목을밧고
느러졌더라

이팔청춘 똥갓치절분부인이 무인공산길흔곳에서 그다경을향하야노으니 하늘을
가리는 교목가지에 들니는바름소리와 석간에홀은는 시늬소리썩이로다

박씨가 곤하드러던잠을쳐듯 괴지기를 부드등겨고 숨을휘이니쉬며 눈을써서
휘휘들너보다가 눈을도로감더니 벽을안스고도라누어 혼즈성각이러

에그 예가엇의인가 덩녕목을밧여 죽엇는디 예가뒤집인디 내가와서 두러누

엇나 사름죽은 혼이 정말잇서서 나 죽은 혼이 여귀를왔나 아모리 혼이기로 아
 지 못하논 집에를 엇지히셔왔슬가
 그럴리치가잇나 사름이 죽으면 혼승빅강 (魂陞魄降) 하야 혼은 흐터지고 신데
 논 혼이 될부인디

아마내가 죽은지 얼마아이된것을 이집사름이 발각하야 글너다가 뒤엿나 보다
 한참이리흐제 로파가 미음그릇을 들고드러와 머리맞헤노코 억지에다손을언스
 고 감안감안지긋흔들며

정신을차려 이것좀마스십시오 예이것좀마스시오

(박)

(로) 정신을차려 이것을마시어서 속을좀축이십시오

(박) 예가엇의인디 나를디러왔소

(로) 예이딕이 이동리직강으로 계신틱이올시다 딕하인이아씨셔서 그디경호
 신것을보고 와서전하논말씀을 드르시고 동리직강이되셔서 상명관두의일을
 모로시논체 하실슈가업셔 급히하인을디리고셔 이러케되시여다 구원하시논
 디이람니다

(박) 직강어룬의 성씨논누구시오

(로) 성씨논초찰알으셔도 아실터인디 이리조급히 무르실것이무엇잇습니가리

씨람니다 리씨

박씨가 그집성이 리가라논말을듣고 그제논도라누으며 속마음으로

오그도다형호일이다 나외게호호뜻을듣음은 같가라논디 이집성은리가라지
 이동리직강으로 잇다하니 불치호놈이 후침탈을홀지라도 녀녀히전압을홀터
 이니 내가저미음을먹고 괴운을차려 살아서 무슨방편을엇던지 천정에를차
 자가셔 잇다가 하일하시고 가장을맞나보고 이원동호말을 가슴이시원하게
 다하고 죽어도죽겠다

하고 그고귀를들어 그미음을 마신후

(박) 여보마누라님 이곳이엇의오

(로) 예가 엇의인지도 알지도못하고 오셔습더닛가 예그이상시러워
 라 예는서산 감악골이람니다 딕은엇의신데 예기누구를천하셔서 오섯든가
 오또천호집이닛셔 오셔스면 여러날이고 좀잔이고 단어가실싸름이지 무인
 지경에가셔서 목은웨미섯셔오

(박) 디며도 모르논니가 천한사름이 누가잇겠소 니입으로말은 홀슈업소마논
 이상시러온일이잇셔 예를왔다가 급호육이 당도하닛가 부득이하야죽기로
 작덩하얏습니다

(로) 아씨스정은 모로겠습니다마는그러니 뉘긋하야씨가 그러케독홀마음을두

섯달말삼이 오닛가 애그야 모려나 던우신 조호셨습니다 사름의 눈에 안이 띄엿
 더면 속절업시 세상을 바리섯슬 것이오 또 사름 눈에 안이 띄엿더면 살아나실
 지라도 무슨 일이 잇습는 지는 알슈잇습닛가 할멈 잇는 덕이라고 칭찬호는 말이
 안이라 참말이지인조호시고 후덕호신결이오

(박) 그리이덕에 아마식솔도 만으시고 형제도부즈시지

(로) 식구는 어린기까지 너덧분밖에 안이 되시고 지니시는 범절은 이근처에
 첫지가는부즈신결이요 인제미음을 조곰 잡슈섯스니 평안히 좀누어 계십시오
 구슈호게 밥을 조코마치 열여가지고 올 것이나

로파가 밧그로나아와 사랑문압에와 기침두어 번을호닛가 사랑문이 드르특열
 이며 신슈가 띄웃호 소년남조가 마조나셔며

(남조) 그리인제는 아조정신을 차렸나

(로) 정신을 차리고 말고오 리약을 다 곳 잘호던데오

(남) 무슨 리약을 호았나 내가 누구란 말은 호지말지

(로) 천만의외 말씀도 호심니다 제가 그리케 철이 업습닛가 번연히알며 바로말
 을 호게오 뉘덕이나고 못가에 이동리직장으로계신 리씨덕이라고 속엿지오

(남) 에- 그말 잘답호았네 그런덕그말은 엿지히셔 못던가

(로) 그리잇습닛가 제가그말나오는것을 좀드러보라고 더러케 뜻호신아씨가

웨그런독호 마음을 품고 목을 뒤섯나냐고 만일 덕사름이 보고와셔 엿줍지안

이 힘더면 속절업슬 번호았고호며 덕인품을 한업시 칭도호았더니 드를만호

고잇다가 덕성씨가 누구시며 식솔이 몇이나 형제가 견디거나 못호것을 보고제

가사 못풍을 첫습니다

(남) 무엇이 라고

(로) 성씨는 리씨라 호구오

(남) 에이 사름 내성을 다 갈랏단 말인가

(로) 그러면 엿더케 호닛가 못지안으면 굿티여 말호필요가 업스나 못난이상에

바로 말호차니 서방님씩셔 부락호신일은 잇고 생각다 못호야 좀시 권도를 써셔

리씨라고 호았습니다

(남) 그말은 고만두고 풍은 무엇이 라고 호첫나

(로) 식솔은 어린기까지 불과 스오명밖에 안이 되논디 저산은 이동리안 갑부

라고 호았습니다

(남) 저산은 그리케 말호기가 용혹무괴이지만 식솔은 웨방슈에 쓰리게 주리여

말호히나

(로) 서방님씩셔는 석도 호심니다 귀머리 맛푸는 혼인안이고 식솔만은것을
 누가도와 호담닛가

(남) 어! 늙은이도 사름만하잖아먹은 호랑이 일반으로 별궁리를 다하얏지대
관절은치가 잘하면 나와살기논하겟던가

(로) 살고말고요 혼인이반쯤은 밭서되얏는ديو

(남) 엇지히셔 그러단말인가

(로) 무르실것무엇이심잇가 무슨생각이잇지안이하면 남의덕식구는 웨못코져
삼은 웨못습닛가 그만하면 다알조이지오 그쯤알으시고 가만이만 계십시오
밥줄얼는 실어가지고 드러가 다시리약이를 더하야보고 나와엿쥬오리다

(남) 그리하게 아모도록 덜뜨리지말고 살살달녀여 말을하게

(로) 녀려말으십시오

하고 안으로드러가 밥을그웃을 구슈하게실여 소반에밭들고 박씨잇는방으로
드러가며

(로) 아마시장하섯지오 그썸짓미음훈술썸 마스시고 이썸썸지계셔셔

(박) 시장하기는 무엇이시장하여요 팔면부지 모로는사름을 이쳐림티접하시
니 미안하기가 한이업습니다

(로) 별말삼을 다하시지요 이늙으니는 이덕을상전곳치 브라고 잇는티이닛가
식이시는티로 훌싸름인티 이늙으니향하야 미안하 녀이실것이업습니다

(박) 에그이덕에서는 팔면부지다죽게된인성을 넘오과도하 티우하시니 이선

제를엇더케하면 갑는단말아오

(로) 이덕인심은 지리로뉘게든지 박하시저를 안이훈터이닛가 하필아씨홀노더
선제를섯다고 하실일이안이올시다 아모말삼말으시고 얼마동안몸조섭이나
하신후 가실곳으로 가시던지 이덕에 몇달간계시던지 좌우간무음티로 하시
시오

이모양으로 물을너가듯이 조곰본석을 탄로치안이하고 수일간을 거짓말을하
니 아모경력업고 다만정티훈박씨는 철분밋고 첫저는 구두쇠일행을피하고 들
저는압흔발 다리를 조섭하야 차차천정을 차자갈작덩으로 아죽잇스며 한편으
로의심이나기논

이집에필경 안유인이 잇슬터인데 일절형영이업고 다만로파가 드나들썸이
오이싸금 티여섯살그량되는 으히가와셔 기웃기웃드려다볼다름이니 그안
이이상훈가 처엄에는 내가정신도업고 또는번잡시럽게 남의니용을몬져못기
가 무엇히셔 감안이잇섯건이와 지금은마누라와 친숙도하야지고 일이하도
이상하니 엇의좀무려보리라

하고 로파드러오기를 기더려

(박) 여보마누라님 좀무려볼일이잇소

(로) 무삼말삼이야오

(남) 어! 늙은이도 사름만하잖아먹은 호랑이 일반으로 별궁리를 다하얏지대
관절은치가 잘하면 나와살기논하겟던가

(로) 살고말고요 혼인이반쯤은 밭서되얏는ديو

(남) 엇지히셔 그러단말인가

(로) 무르실것무엇이심잇가 무슨생각이잇지안이하면 남의덕식구는 웨못코져
삼은 웨못습닛가 그만하면 다알조이지오 그쯤알으시고 가만이만 계십시오
밥줄얼는 실어가지고 드러가 다시리약이를 더하야보고 나와엿쥬오리다

(남) 그리하게 아모도록 덜뜨리지말고 살살달녀여 말을하게

(로) 녀려말으십시오

하고 안으로드러가 밥을그웃을 구슈하게실여 소반에밭들고 박씨잇는방으로
드러가며

(로) 아마시장하섯지오 그썸짓미음훈술썸 마스시고 이썸썸지계셔셔

(박) 시장하기는 무엇이시장하여요 팔면부지 모로는사름을 이쳐림티접하시
니 미안하기가 한이업습니다

(로) 별말삼을 다하시지요 이늙으니는 이덕을상전곳치 브라고 잇는티이닛가
식이시는티로 훌싸름인티 이늙으니향하야 미안하 녀이실것이업습니다

(박) 에그이덕에서는 팔면부지다죽게된인성을 넘오과도하 티우하시니 이선

제를엇더케하면 갑는단말아오

(로) 이덕인심은 지리로뉘게든지 박하시저를 안이훈터이닛가 하필아씨홀노더
선제를섯다고 하실일이안이올시다 아모말삼말으시고 얼마동안몸조섭이나
하신후 가실곳으로 가시던지 이덕에 몇달간계시던지 좌우간무음티로 하시
시오

이모양으로 물을너가듯이 조곰본석을 탄로치안이하고 수일간을 거짓말을하
니 아모경력업고 다만정티훈박씨는 철분밋고 첫저는 구두쇠일행을피하고 들
저는압흔발 다리를 조섭하야 차차천정을 차자갈작덩으로 아죽잇스며 한편으
로의심이나기논

이집에필경 안유인이 잇슬터인데 일절형영이업고 다만로파가 드나들썸이
오이싸금 티여섯살그량되는 으히가와셔 기웃기웃드려다볼다름이니 그안
이이상훈가 처엄에는 내가정신도업고 또는번잡시럽게 남의니용을몬져못기
가 무엇히셔 감안이잇섯건이와 지금은마누라와 친숙도하야지고 일이하도
이상하니 엇의좀무려보리라

하고 로파드러오기를 기더려

(박) 여보마누라님 좀무려볼일이잇소

(로) 무삼말삼이야오

(박) 내가 이딴에와잇슨지가 벌써 스오일이 되얏는디 주인되시는나는 뵈을슈
 가업슨니 무슨나스흔사름을 주인이와셔보시지 안는다고 감히하난말슴이안
 이라 죽게된사름을 살이시고 죠셔공피를 골육지친보다 못지안케하시며 궁
 금하시더리도 동서녀편에 후드려다보실듯흔디 도모지뵈을슈업스니 이딴
 에 사랑으로게시고 뉘권은안이게신가오

(로) 에구말슴을 무르시나 이제말이지 이덕서방님을 열모로쫓아보아도 오복
 이그득하시것만은 엇지그런지 처궁이부족하시셔 두번이나 사모를쓰섯것만
 은 련겉푸 상처를하시고 지금환거로계산디 지금안악에는 아모도안이게시
 고을에다섯살된 도령님하나썩인디 방장지취흔쳐를 스면으로광구호는중아
 람이다

(박)

(로) 참말슴이낫스나 인제리약이지 이딴인품이 꾀도흐실닌다 도라가신 아씨
 게셔도 할멈이 죠셔으로드나들며 한집식구처럼지닛지오만은 열에흔일 그아
 씨게셔 잘못하시는것이잇스면 는즉는즉알아드르시도록 타일으셔셔 한늘한
 시곳치 음성이창밧게를 안이나오고 화기가더럭더럭 흐섯답니다 엇지드르
 실논지는 모로지만은 아씨처럼얌전흔신량반 한분이엇의 꾀섯스면 서방님
 과 아쵸십상보리비필이 되겟스나 엇의입에마전셔이 그리쉽슴닛가

(박)

(로) 또그리고 서방님말슴이 점은터에 홀아비로러는 슈는업고 장가들블가블
 들터인디 식시장가를 또들즈흔즉 남의집규중에좀겨잇는 규슈의외양은 조
 세알슈업스스즉 런헝으로 현철하면 도흐려니와 그러치못하야 요악하거나 간
 투하야 집안에 곤화근이 될디경이면 량반에도리에 그럿타고 쫓는슈업고스
 세난처홀터인즉 아쵸튜터러노코 과부너나 리연흔부인중법절을 조세알만흔
 분을 다려다가 빅년가약을 미지시겟다하시논디 이씨까지 서울시골업시 사
 면팔방구호시것만은 서울여간 잇다는것들은 모다것확이셔셔 속에성불안당
 만 드러안젧지 아모썩에도 쓰지못하겟고 시골혹잇셔야 그것은모다 무스하
 고 문견이업셔 장작바리나 착실헤드려살마녀야 사름이되겟스닛가 조연님
 고쳐져서 지금스지 홀아비를 못면하섯는걸이오

(박)

(로) 파가 그리힘을드려말을히도 박씨가도모지 디답이업스닛가 제역시조미업던
 지 그말은중동무이를하교 다른리약이로 그렇게령하다가 바깥으로슬몹이나아
 가더라
 로파나아간뒤에 박씨가홀노안져 공곰싱각흔즉 로파의흔말이 아모려도심
 상치안이흔지라 속마음으로

더마누라 슈작아 아모려도 슈상흔디 내가또못된구덩이에를 필경드러왔나보
다 진작죽어지거나 흥얏다면이육져육안이보고 도출것을 이일을장초엇지
흥면 좃탄말인구 오나니마음만 단단히먹으면 차라리 성명은심어질지언딩
육이야 당하라

로파가 그길로 갈씨를나가보고

(로) 서방님 사랑에 계심시오

(갈) 응 여괴잇네 웨그리흥나 인제는 쾌히났던가

(로) 쾌하났고말구오 아췌회치게 되었는디오 군게도다리를 췌랬다고 이러게

천연제일만 흥시지말고 진작귀정을흥시시오 점점의심만 너는디오

(갈) 의심을너다니 할멈나 무슨말을흥얏던가

(로) 제는성미가급혀서 엇의참갓시오 그리말을 건네볼싸흥는차에 그가먼저

딛에니권이계실러인디 엇지혀서 도모지 퇴일슈가업는나고붓기에 그말싸라

서딛형편을 흡신평을쳐서 리약이를흥며 알아드를만치 변죽을을니넛가 아모

반디는업시 스식은달으며 디답을안이흥여요 인저는눈치를치엿스넛가 서방

님게서 무음에업스시면 리어너와 그러치안커던 진작잡도리를 흥심시오 싯

떡흥다는게잡아물에도로너오리다

(갈) 독안에든쥐인데 엇의갈나고 걱정인가 그나더나 오날은바로쏘아볼터이

니 아모눈치되지말고 저녁밥이나 든든히먹도록권흥게

(로) 걱정말으심시오 그거흥은 진심췌흥을것이니 서방님췌서 드러오셔서 첫

디순종을안이흥더리도 아모췌록 살살달니시고 넘어홀췌리시질남은 말으시

다가 만일 싯싯니고집흥거던 강제로라도흥셔서 이번손을넘기지마으심시오

에그츨 사름은다시보아도 극가가흥던걸이오 혼인이순성만흥면 맥에아췌

적지안이흔 복이올시다

(갈) 응 그걱정은다시말고 감안히잇게 미스를넘오 조금하글면 랑피흥기가쉬

운법인디 공연히 부즈럽시 무슨소리를 짓거려서 눈치쳐어나보게그려 부디

슈상스럽게 굴지말고 저녁밥을 달게먹도록흥라고

흥더니 로파귀에다 무엇이라고 귀스속말을흥야 드려보너라

이췌박씨는 로파의말을드르니 가슴이다시너려안스고 그가막혀서 가만히누엇

는디 로파가밤을가지고 드러오더니

아씨웨누으섯소 이러나 저녁좀잡슈시오 구실구실흥것이 밤이야췌췌잘되

얏셔요

(박) 천천히먹을터이니 깨내버려두오

(로) 에그 씨리가다식는디 언제잡슈시라고 흥실췌 에엇의가 편치안으셔요

박씨가 엇의가편치안으냐 못는말에당장 급흥불을 췌의스가나셔

더마누라 슈작아 아모려도 슈상흔디 내가또못된구덩이에를 필경드러왔나보
다 진작죽어지거나 흥얏다면이육져육안이보고 도출것을 이일을장초엇지
흥면 좃탄말인구 오나니마음만 단단히먹으면 차라리 성명은심어질지언딩
육이야 당하라

로파가 그길로 갈씨를나가보고

(로) 서방님 사랑에 계심시오

(갈) 응 여괴잇네 웨그리흥나 인제는 쾌히났던가

(로) 쾌하났고말구오 아췌회치게 되었는디오 군게도다리를 췌랬다고 이러게

천연제일만 흥시지말고 진작귀정을흥시시오 점점의심만 너는디오

(갈) 의심을너다니 할멈나 무슨말을흥얏던가

(로) 제는성미가급혀서 엇의참갓시오 그리말을 건네볼싸흥는차에 그가먼저

딛에니권이계실러인디 엇지혀서 도모지 퇴일슈가업는나고붓기에 그말싸라

서딛형편을 흡신평을쳐서 리약이를흥며 알아드를만치 변죽을을니넛가 아모

반디는업시 스식은달으며 디답을안이흥여요 인저는눈치를치엿스넛가 서방

님게서 무음에업스시면 리어너와 그러치안커던 진작잡도리를 흥심시오 싯

떡흥다는게잡아물에도로너오리다

(갈) 독안에든쥐인데 엇의갈나고 걱정인가 그나더나 오날은바로쏘아볼터이

니 아모눈치되지말고 저녁밥이나 든든히먹도록권흥게

(로) 걱정말으심시오 그거흥은 진심췌흥을것이니 서방님췌서 드러오셔서 첫

디순종을안이흥더리도 아모췌록 살살달니시고 넘어홀췌리시질남은 말으시

다가 만일 싯싯니고집흥거던 강제로라도흥셔서 이번손을넘기지마으심시오

에그츨 사름은다시보아도 극가가흥던걸이오 혼인이순성만흥면 맥에아췌

적지안이흔 복이올시다

(갈) 응 그걱정은다시말고 감안히잇게 미스를넘오 조금하글면 랑피흥기가쉬

운법인디 공연히 부즈럽시 무슨소리를 짓거려서 눈치쳐어나보게그려 부디

슈상스럽게 굴지말고 저녁밥을 달게먹도록흥라고

흥더니 로파귀에다 무엇이라고 귀스속말을흥야 드려보너라

이췌박씨는 로파의말을드르니 가슴이다시너려안스고 그가막혀서 가만히누엇

는디 로파가밤을가지고 드러오더니

아씨웨누으섯소 이러나 저녁좀잡슈시오 구실구실흥것이 밤이야췌췌잘되

얏셔요

(박) 천천히먹을터이니 깨내버려두오

(로) 에그 씨리가다식는디 언제잡슈시라고 흥실췌 에엇의가 편치안으셔요

박씨가 엇의가편치안으냐 못는말에당장 급흥불을 췌의스가나셔

(박) 공연히 일신이안이압흔디가 업셔야모것도 먹고심흔생각이업고 쌍속으
로드러가는 것갓하셔그리오

(로) 그케웬일이오닛가 밥식문안아읍고저혼다더니 밤식난겨녕 두어시동안에
관게치안으시던 아씨가엇지히 그러케편치안으심닛가 약이나 진작지어다잡
슈셔야지

항고밥상은웃목에다 길치어노코 분쥬히머리를집히보고 슈족도만져보더니 황
황히 밧그로나아가더라

로파가 갈씨를나아와보고 보씨의병세를말호고 이웃약국에약을지어다가 일변
디런다 권흔다호니 박씨는눈을씩감고 얼도당도안인약을 마시며 알는모양은
점점더호야 근일망을 금흔욕을면호고 무스히지니엿더라

하로난 갈씨가 슬몃이화가나셔 로파를불너니여

(갈) 여보게 병아엇던모양이란말인가 밤낮그식이장식이란말인가 쇠불알썰러
지면구어먹기로 세상스름이 갑사호야견디겟나

(로) 서방님도 썩호셔라 저보기에는 그아씨가 그리디단히 알는모양은 안입
디다마는 서방님께셔 하도넘오 디단히위호시닛가 잇째서지 말슴을안이엿
쥬어슴니다만은 제무음긋히셔는 죄우간발셔 죠장원을 너엿게슴니다

(갈) 자—두말호겟업시 니가오날밤에는 조네말맛다나 세상업셔도 죠장원을

너고말러이니 그리알고조네랑은

호더니 로파다려 무슨말을겟헤누가잇셔 듯난듯이 또소곤소곤호후

(갈) 어셔드러가보게

(로) 예—드러갑지요 제가이왕에도 엿쥬엇지만은 아모죤록넘오 왈기지를말

으시고 인기제이도지(因其勢利導之)를호심시오

(갈) 거정말게 너어려니 알아호를가

갈씨가로파 드러간뒤에 혼조생각이라

그게짐을집에다두고 여러날동안 눈치를보닛가 웃노라고 방문밧게를 한번

너다보지를안이호고 음성흔마디 곱하니지를 안이호는양이 여간찬물에 돌

이안인디 말흔마디션통업시 오날밤에 니가드러가 엿디케될슈 런힘으로썬

죤을공면 니소원성취가 되련이와 데스가빋나는날이면 큰위절이안인가...

.....

에라위절은 무슨위절 제가순종안이호다고 근이심일을 집에다 피시어다두

고 칙스밧들듯호다가 그디로슬몃이 물너안질싸 그썩가셔는 쥬먹다짐이라

도호야 니마음더로호고야 말러이다

한참아리호제 그건너스말로용이 문밧게셔 기침두어번을호더이

서방님께심시오

갈씨가 미다지를 열어 보더니

(가) 어— 령감인가 어서 드려 오게 웨어 제 오늘은 볼 수가 없나

(령) 미던기 집입을 마저 써여 장에를 보되 라고 씬씩 못하고 드러안젧섯습니다

그러하오나 그일은 었더케 되얏습잇가 하라범야 술셔잔을 었어먹게되얏습
닛가 못었어먹게 되얏습잇가

(갈) 웨겔이 써사지 알기만히셔 병구원하노라고 골몰중으로만 지닌다네

(령) 었의를 그러케 오리알앗단말습시오 지금은 좀 감제가 잇는요

(갈) 었의를 지목할병도 못되고 밤낫점천듯이 누어셔 곡기를 아조 썩썩으려드

러셔 집에잇는 할범이 세상쇼리를 다하며 억지로원하야 간신히멧술셔 근근
허련명만하야 잇는모양아라네

령감조가 우두커니안져 혼총싱각을하야 보더니

(령) 서방님께서 일을잘못차리섯습니다

(갈) 무엇을 니가잘못히셔

(령) 그병야실병이안이라 필경씩병인것을 이써사지 속으섯나보이다 아마무
슨눈치를 미리보이섯지오

(갈) 안이 눈치는무슨눈치 니가일절 안에는 투족을안이하고 말흔마티듯게히
본적이업는겔 오— 의심닐일할가지는 잇섯지 우리집할범이 무슨소리를더

러젧거리엇다두군

(령) 예— 필경 그런일이잇나보이다 그약은분내자 의혹이싱기어셔 몸을썩쳐

피하고십으나 독안에든쥬라 었지하는슈는업고 위션발스등의볼셔기로 썩
병을하얏습니다 종리속지마르시고 오늘밤이라도 귀정을니십시오

(갈) 오날밤이라도 귀정을 썩니야하겔나 저네말안야라도 나도그리홀가 경륜
을하교 잇는차일제

(령) 에잘싱각을섯습니다 저는총々히셔건너감니다 총々도하련야와 데일할범
이 궁금히홀터이닛가 어셔가셔 리약을하야 하겔습니다

결자가 갈씨에집에오기는 그동안흔인이되얏스면 배섬이나엇이다 먹을장덩으
로슬슬왔다가 뒤동슈독々치고 도라섯는디 대문밧게를 막나가다가 도로드

러오며

(령) 서방님 밧게웬손님이 오섯습니다

(갈) 손님 손님이엇의셔오섯셔

키가후리후리하고 외화가션명흔 소년남조가 로옹의뒤를싸라 드러오며

(소년) 형님이딕에게신가

(갈) 누구시오

하며 니다보더니 반식을하야반기며

갈씨가 미다지를 열어 보더니

(가) 어— 령감인가 어서 드려 오게 웨어 제 오늘은 볼 수가 없나

(령) 미던기 집입을 마저 써여 장에를 보되 라고 씬씩 못하고 드러안젧섯습니다

그러하오나 그일은 었더케 되얏습잇가 하라범야 술셔잔을 었어먹게되얏습
닛가 못었어먹게 되얏습잇가

(갈) 웨겔이 써사지 알기만히셔 병구원하노라고 골몰중으로만 지닌다네

(령) 었의를 그러케 오리알앗단말습시오 지금은 좀 감제가 잇는요

(갈) 었의를 지목할병도 못되고 밤낫점천듯이 누어셔 곡기를 아조 썩썩으려드

러셔 집에잇는 할범이 세상쇼리를 다하며 억지로원하야 간신히멧술셔 근근
허련명만하야 잇는모양아라네

령감조가 우두커니안져 혼총싱각을하야 보더니

(령) 서방님께서 일을잘못차리섯습니다

(갈) 무엇을 니가잘못히셔

(령) 그병야실병이안이라 필경씩병인것을 이써사지 속으섯나보이다 아마무
슨눈치를 미리보이섯지오

(갈) 안이 눈치는무슨눈치 니가일절 안에는 투족을안이하고 말흔마티듯게히
본적이업는겔 오— 의심닐일할가지는 잇섯지 우리집할범이 무슨소리를더

러젧거리엇다두군

(령) 예— 필경 그런일이잇나보이다 그약은분내자 의혹이싱기어셔 몸을썩쳐

피하고십으나 독안에든쥬라 었지하는슈는업고 위션발스등의볼셔기로 썩
병을하얏습니다 종리속지마르시고 오늘밤이라도 귀정을니십시오

(갈) 오날밤이라도 귀정을 썩니야하겔나 저네말안야라도 나도그리홀가 경륜
을하교 잇는차일제

(령) 에잘싱각을섯습니다 저는총々히셔건너감니다 총々도하련야와 데일할범
이 궁금히홀터이닛가 어셔가셔 리약을하야 하겔습니다

결자가 갈씨에집에오기는 그동안흔인이되얏스면 배섬이나엇이다 먹을장덩으
로슬슬왔다가 뒤동슈독々치고 도라섯는디 대문밧게를 막나가다가 도로드

러오며

(령) 서방님 밧게웬손님이 오섯습니다

(갈) 손님 손님이엇의셔오섯셔

키가후리후리하고 외화가션명흔 소년남조가 로옹의뒤를싸라 드러오며

(소년) 형님이딕에게신가

(갈) 누구시오

하며 니다보더니 반식을하야반기며

(갈) 어! 아내이게 웬일인가 어서드러오게 집안에 별고나 업나
 (소) 우리집에는 아모일도 업습니다만은 형님덕에서는 그동안그런변상이엇
 의잇단말씀이오닛가

(갈) 지나간말하야 무엇하느 모도다팔조소관이지 그러나 시장하겄네그러
 하교 안문으로향하야

할멈할멈 진지호상차려너오게 감은돌쳐방님오셨네

그소년은 별사름이안이오 곳초두형이라 은네의부탁을듯고 그길로집에서떠나
 박씨부닌종정을 아모리스면답지하야도 도모지알슈가업는지라 문안문밖으로
 슈업서드나들다가 할일업시집으로도오며 한탄하기를

어! 명랑호일도잇다 그러니그만치담지를하여도 알슈가업담 내가계집에게

고혹호것아안이라 은네의 정성이하도괴특호기도호고 박씨부인정경이듯기
 에 극히원동호기에 종적을차자보마 장담을호고나섰는디 만일못참고 드러

가면 내점자논니 그런실언이업고 또불상호은네의 정경이오작호나구

하야 진퇴유곡으로 남문밖언의가가마루에가 담비를피여물고 우두커니안젓노
 라니 엇던교군들이 막걸리집에서 술을먹고나오며 저의세리 리약을호는것
 을귀스결에 얼꽃드르닛가 이상스러운 귀절이늘닌다

두형은정신이 번쩍나서 교군쌀뒤를 슬슬싸라가며 저의들리약이호는것을듯디

라

(갑) 옛보게우리가 두절방식이에 목아지를넛코 버러먹고살나닛가 별일을다

보지안앗나

(을) 별일이 무슨일이란 말인가

(갑) 압다이사름 그떡조네도 못차갓다오지 안이호엿나

(을) 엇의를 언제갓다 왓단말인가

(갑) 이달초싱에 러승지사덕 교군을호야 서산갓던 말일세

(을) 이사름 정신이참업네 내가언제 그떡에갓는 조네와그딕구종 구두쇠와갓

지나논그날 양근길을떠났는디

(갑) 올치이런정신보아 참구두쇠와갓지 에! 런하에망호놈은 구두쇠란놈

(을) 웨

(갑) 그놈이그땀중으로 안밖업시드나들며 잔싸가긱지안이히나 조네도 한동

리에서살아셔 아논터이니 말이지

(을) 그러셔

(갑) 그떡되시고 가던교군이 그딕며느님아씨 타신교군일세

(을) 그아씨천당이 서산이던가 천당에가신다는말을 내가저날결에드러는디

(갑) 이스름 천당이 다무엇인가 그아씨천당은 충청도라네

(을) 그러면 서산일가 스님이 있던가
 (갑) 안이라네 듯해보면 남의 일이라도 괴막히지 처음에 누가 영문이나 알았나 그 덕에서 교군을 할라고 불은 사기에 갖더니 그 아씨 교군을 뵈시고 천덕덕으로 가라고 할데 그려

(을) 그리셔

(갑) 금기 교군을 메고나서 냇가 구두쇠란 놈이 서문밖으로 나가자 할기에 붓씩 붓씩 록번이를 넘어 서산길로 가더구나

(을) 그리셔

(갑) 서산 감아골 넘어가는 교지안이잇디 그 교지 넘어가는 길에서 바른손편으로 나모스군에 길이잇더구나

(을) 그 중유벽흔디 가서 교군을 디려노차더니 술흔잔식 먹고오자고 디리고디려 오기에 서독도 모로고 절예간식시 중흥라는데 디려오는데 그 아리 삼마장 가량은 되는곳에 웬스름 사오명이 웃속스스서잇다가 구두쇠를 보고 무에라 수군수군하더니 구두쇠가 술갑을 디전으로 나를쥬고 짐으로 가라고 하더구나

(을) 올라그만하면 알겠다 그 덕가풍이 괴약망척할야 서방님은 동경으로 공부 를가게신티 그 으씨라는 량반은 형세를 웃지 잘가졌던지 즈식스지 비엿더란다

그 아씨 교군 가는것을보고 무슨쌈스이잇던 놈이가로차가라고 저의동류를 디 리고 게와서기디리다가 구두쇠란놈을보고 귀를맥인것이지 별조잇나나

(갑) 안이다 이이남의의미흔 소리마러라 그 아씨가 식어먼이 눈에나서 이를빚 는니 무엇을도적하얏느니 그 게모도다 모함속이란다 우리록이 어머니가 그 댁에를 종종드나드난탓으로 그댁일은 내가모다 즈세안다만은 귀티여번설 은안이 흥건나와 여러말할것업시 그 으씨는 아모죄도업고 불상만하시니라

(을) 그리 구두쇠는 엇의로갓노

(갑) 그놈이 가기는 엇의로가 그놈들과 하동아리가되야 갖슬터이니 그것은물 어 무엇하나

(을) 고만두게 그사짓리약이 우리게 무슨상관이잇나 잘단여오게 나는문안으 로드러가네 지금가면 몇칠이나되겠나

(갑) 여러날될것 무엇잇나 우리어머니 산쇼에 풀이나썩고 곳을느와야 버리 를히셔 일슈를부어가지

한놈은 서으로가고 한놈은 동으로가거늘 두형이가 갑의뒤를 슬슬싸라가다가 (차) 이량반 담비스불춤 붓침시다

(갑) 예- 그리하시오

갑이가던길을 멈추고 썩도라서서 담비스들을 쫓던여밀거늘 두형이가 권연하

기를 넘어 백々붓치고

(차) 이량반 우리가 담비스 불췌붓쳐스니 인스흡시다

(갑) 황송호오이다 저는 문안스난 교구원이올시다 잊의계신 서방님이십시오

(차) 응나도 문안잇난사람이오 뉘대이시오

(갑) 예 저는 황귀득이올시다 서방님은 누구셔오

(차) 나는 차셔방이오 그러나 내가 황셔방에게 잠간 무러볼일이잇쇼

(황) 무슨말씀이온이가

(차) 다른일이안이랴 앓가 솔곳차사든친구와 서로 리약이혼일이 안이잇쇼

황귀득에 얼골이 당황히지며

(황) 저의세리 귀담을향얏지 별리약이혼것은 업습니다

(차) 안이 은회할것업쇼 니가 티강은 드렸는디 쯔셔히듯즈고 그리호오

하등의무리라느것은 겁이 의례히만은법이라 두형의 다췌츠못는것이 하도당

황호닛가 무슨말이나 제게도라을출알고 싱작이을췌노라고

(황) 그셔방님이야 공연하조르시네 아모리약이도 혼것이업다닛가 웨이리심

닛가 저는 밤바감이다

호고 다시는 디답도안이호고 회적회적 밤비가거늘

두형이가 그자의 링락히 가는것을보고 병법을뒤셔셔 별안간에 압산이 덜적

올게

이놈아가기는 엇의를 모름티로가 거긔씩 췌거라

황가가 샘짜놀나 감히 가지을못호고 핵도라셔며

(황) 웨 남다려 욱은호시오

(차) 이놈 그췌짓욕 욱보다더혼것은 췌못당할샤

(황) 내가 무슨잘못호죄가잇닐니 이리 을르시오

(차) 이놈네가 잘못호죄가 텅녕업셔 너 이놈 아췌술갓치먹던사람과 무슨리

약이를향얏느냐

(황)

(차) 그리도 바로말을 못할사

(황) 서방님은 누구신티 이리케 무르심닛가

(차) 오 나 내가 누구는 알아무엇호게 무를만호닛가 못지

(황) 그러실터이면 말씀을향오리다만은저는 아모죄도업습니다

호고 구두쇠가 불너셔 박씨부인 교군호야가던 일장을 차례로 말호니

(차) 오 나 내가 자제알아보아서 네말과 텅녕호흐면 이어나와 만일 일호라도

그말을향얏스면 그셔가셔는 너는 죽고남스지못호렷다

(황) 아모렷 그럼지오 엇의가감히 그말을향오릿가

(차) 짐아엇인고 동호수가 얼마야
 (황) 제집동호가 여기있습니다
 하고 허리에 호패를 띠여주며

(황) 저는 무식한야 입으로 옮기지를 못하겠스오니 이것을 보십시오

두형이가 지갑에 연필을닉여 설명거주를 적어냈고

(차) 오- 인제는 가거라 내가 자제히도사훈후 너를 차질날이잇슬것이니 그 리알고 이디말을 일절 입밖게닉지말렸다

(황) 황송호오아다 입밖게 닐리가잇습닛가

적々훈산중에 사름의그림조는업고 나모가지우에 지져귀느니 재쇼리뿐이라 황 가의말을듯고 차져온 두형은 수십일전에지나간 박씨부인을 만나기를 뜻하고 그곳을 차져온것이안이라 그곳디형을보아 엇의로향훈바를 만분일이나 짐작 할가힘이러라 집행이를 길사가 바위에다 기디여세우고 조일훈기를닉여 띄여 물고안져서 이리싱각 더리싱각 할는것이라

그놈이 교군을 이리로 티여가지고와 예다가 교군을노코 닐려가서 그리면 그부인이 혼조교군속에서 기디리고 잇섯슬터이지 덩녕 언의씩씩지던지 그 디로 닐버려두조고 구두쇠가 닐려간것은 안일터이오 구두쇠놈과 서로만나 짓거리든자들이 의심이드난구면 그자들의성명거주를 한어나알아야 뒤를것

어드러가보지 더산넘어가엇의인구 응 북한산성이지 그러면 이산넘어는 우 리미가잇는 서산인가보다 서산으로는 갓슬듯십지안코 그즈들이 박부인을 야미훈놈 과부업듯한야가지고 필경 북한곳은 으스스결간으로 갓기도 쉬운 티안이 북한으로가라면 이리로왔슬리가 잇슬나구오나 제가 이런디에잇 는놈들이지 별건곤에잇는놈은 안일터이니 내가 언의씩씩지던지 괴어히도 라단이면 필경 알고야말겠지 위선 믿음닉난터로 북한부터 올라가보고 하며 집행이를 다시집어들고 막 이려서라하느디 엇더훈 로동자하나히 더부 룩훈머리에 무명슈건을 질선동이고 죠고마훈자루에 무엇을 툇터지게 너어질 머지고 썩썩썩 올나오더니 두형이 집행이제잇던 바위우에다 쌍호고 닐려 노트니 쌍문이에서 슈건을닉여 이마스전에담을 이리저리써스며

에 더웁다 가을스벳이 북중이나 못지안은벌
 두형이 싱각에

더런사름이 련진으로 보고드른말을 곳잘하느니라 허々 실속으로 엇의좀무 러보겟다

하고 집행이를 도로노코 안즈며

(두) 이량반 엇의로가시오

(그자) 예 서산 감악스골노감니다

(두) 질머진것은 무엇이오

(그자) 변변치안은 쇼곰말이올시다

(두) 뉘뉘이시오

(그자) 뉘뉘이랄것이잇슴닛가 제성은 칩갈스즈씀니다

(두) 갈셔방이시오 그러면 갈츨녕씨와 일가간이시오

(그자) 촌뉘는 멀엇슴니다만은 한동리에서 사는고로 당터나 일반으로 갓갑

게 지닙니다

(두) 그러하시오 춘녕씨가 평안한가오

(그자) 평안은하시오마는 그동안 상처를히셔 아쇼 말이안인걸이오

(두) 그져 속현을 못하얏노요

그자가 쥬져쥬져하다가

(그자) 그져 속현을못하얏 제음이러오

(두) 무슨말슴을 그러케 흐미하게하시오 속현을 못하얏 제음이러노

(그자) 그러케 말슴하얏곡절이 잇소마는 그것은 자제알으실필요가 업셔오

두형이가 궁금하야 그말을 즈셰이듯고집은디 즈그를 칭소히녀여 말을 얼뜻

안이하노모양이라 그마음이업도록 하노라고 썰々우스며

나는 별스름이안이라 감은들잇는 차두형인디 춘녕씨의 처남되는사름이오

아모의레말으시고 이야이를하시오

그자가 반겨드르며

(그자) 그러하시오 그러면 미씨게셔 너일가 초취부인이시오구려

(두) 예- 그러히오

(그자) 너일가와 남미간이 되신다는러에 아모말이기로 못하오릿가

(두) 아모럼 그러치오 나도 무를만하기에 무른것이오

(그자) 허허 그러하시겟소 너일가가 처복은 아쇼업셔오 로형미씨로말슴하면

인덕하기로 유명하야 비단일가썩안이라 동리상하로소가 칭도안이하노사름

이업더니 불히히 작고를하시오 그다음에 오씨가에 속현을하얏노디 그부

인도덕단하 유순하야 살님이 다시 썩여가더니 그부인마즈 도라간뒤로는

춘녕이가 다시 장가들마음이업셔 엇의과부라도 위인이얏전하면 엇드랴고

사면듯보더니

(두) 그러시오

(그자) 그집에 복이되랴는지 허가되랴는지 난디업는 도망구게잡하나이 썩드

러은것을 붓드러다 두엇노디 밤낮알키만하야셔 아직 인연도못밧고 죽을공

을 다드리난 모양이지오 그쳐지에 무엇이 어러워셔 장가를 썩못들고 도망

군이를붓드러다 살야는지 사름의성미라는것은 참 천디만상(千態萬狀)입

의다

(두) 도망군이러니 엇의셔 도망하야은 너편네를 못잡어 두엇단말이오 임조가 찾지를 안이하나

(그자) 엇의셔도망히은 너편네인지 알수가잇나오 우리동리 출동나모에다 목을미고 죽으랴하는것을 춘녕의하인니보고 저의상전다려 말하닛가 춘녕이가 급히가셔 쓸너다가 구제하얏는디 그빌미로 알는지 본디 포병익인지지 금서지 알키만하닛가 춘녕이은 그녀인이 쾌하낫기를 기더리노라고 그리는 지 일절 그녀인의눈에 빼이지도 한번안이하고 ㄹ치사느니 마느니 말하마디 듯기에하지도 안이하얏다는걸이오

(두) 여보로형 나와ㄹ치 동형을하십시다 나도 미부도볼겸 우리누의님 산소에도 단일겸 그녀편네일도 좀알아볼겸 가보겟소

(그자) 미부를본다 산소에를 단이신다는것은 용혹무괴오만은 그녀편네일을 알아본다는것은 룡담인듯십소

두형이가 썰々우스며

(두) 그것은 웃노란말씀이오

그자와 압셔거니 뒤셔거니 그산고기를넘어 갈씨에집에를 드러갓더라 춘녕이은 ㄹ치쳐남을 오리간만에 만나니 반갑기는흔중 일변 초취안악 생각이

나서 눈물이 눈즈위에가 핑그르돌며

(갈) ㄹ치네를보닛가 내모음이 공연히 비창하이그려

(두) 형님을뵈오닛가 내모음도 엇더타고 말졸슈업소 그러나 녀오상심하시지 말오그린다고 도라간 우리누의님이 살아오시겟소 그말씀은 고만두고 다 른이악이를 충십시다 그러나 이놈은 엇의로놀너ㄹ나요

(갈) 우리놈말인가 그놈이 저의어머니 죽은후로 안에는 아모도업스미 나를 아비겸어미겸알고 잇는디 불상히셔 남으르지를안이하닛사 응석만 날마다 늘고 스면 썩여단이며 작난만하네 아마지금도 기올로가지산양을ㄹ거나

동산으로 몇독이산양을ㄹ거나 흔것이지

(두) 형님 아모리 불상히도 녀오방돈(放豚)을하지말으십시오 요식 제일풀습에 긴증침들이 무섭소이다 그러나 진작 속현을 안이하시오 엇지자고 이리 케 홀아비로 배신가오

(갈) 속현을안이하교 환거로살겟나 합당흔흔쳐도 쥬련쳐못하교 아모것도 모로난쳐녀를 디려다가 ㄹ라치노라고 속티을성각을하닛가 머리가 직근직근 압혀서 엇의 현계집이라도 자격이 극가흔것만 잇스면디려다가 살작정이다

나 우셔운일하가지가 안이성기였다

두형이가그말에 귀가번쩍열이어 다웃스못난말이라

(두) 무슨일이 그러케 우습단말이오 리약이 좀하시오 드러보게오
 (갈) 음안에서 썩밧기로 우연히 웬계집 한아를 터려다 두엇는디 아직엇더게
 될는지 알슈는엄스나 위인인즉 극가호모양일세만은

(두) 그역형님에 처복이오구려 지금세상에 돈을드려가면서 구호도 가합흔사
 림을 썩구호가 가어려운디 엇더케 집에가만히잇서서 그러케 극가흔사름을
 만났단말씀이오

(갈) 흥 그리히나 내리약이를 좀드러보게 요절을하겟지 저건너압산뒤에 최
 첨지라고하는 늙은이 뇌외가사는디 그늙은이가본디 문안서 투장이질이나
 히며고 살다가 엇지엇지골너 이동리와살며 우리집에도 종종단이더니 하로
 는 최첨지가 분슈히와서 저의집에 웬도망근이 한나히밤중에 드러왔는디 위
 인이 다시말할것업시 가합흔이 괴왕별실을 구호난터이니 불필타구로 그계
 집을 터려다살나호게 내가친히가서 선을보라흔죽 도망을하야 오노라고 밤
 잠을못자서 그러던지 그집웃방에 뽕으리고누어 곤하자는것을 가만히본즉
 것볼안이라니미오 압전하야보이기에 내가터려다살갓다 허락을하고 집으로
 와서방장 하인을보니여 터려오라흔는디 최첨지가 창황분슈히와서 말하거
 를 지금그계집이 고집을하고 저동구로나아가니 하인을 저의집으로 보닐것
 이안이라 압동구로급히 쫓차니보니라고 하기에 그말타로급히 하인을터려

고 쫓차나가니가 그계집이 더압축동속 나모에다목을미고 느러적기에 황
 망히큰니셔 집으로터려다가 힘써치료하야 한인이되얏는디

(두) 그러셔요 엇더케하셔슴닛가

(갈) 최첨지가 내말을하얏더니 그모양으로 목을밧것을보면 그성품이여간 밧
 지를안이흔디 경솔허말을 터렸다가 또무엇이라고하흔는지 의려가되야셔 얼
 콧썩을 밧포못하고 동정만보는디

무슨눈치를치하고 썩병을하흔지 고징흔듯히 참말병이났는지 일향알기만하
 니 엇지하흔슈가업셔 잇셔까지 참사고잇섯는디 아모려도 그리히셔는 장부
 지하세월 이헛기에 곁이지나 훗이지나 오날밤에는 내가드러가서 면당하야
 말을하야 순중하면쇼코 고집하면 강제라도하야보겟네

(두) 형님 감안이계시오 내가좀알아볼일이잇쇼

(갈) 무슨일이잇나

(두) 그녀인에 년괴는 얼마는되여뵈이고 성은무엇이라고 흡더닛가

(갈) 나은섬찰팔제가량쯤 되야되데만은 성은무러본적도 업고 말도안이하야

보앗네

(두) 그러면 형님뒤에잇는 할머이를볼너 그녀인에성을 좀무러보라고 하심시오

(갈) 저네가그성은 알아무엇하러나

(두) 글세 초말음을 흘것이오 어셔그성이나 무러보라시오
출영이가 그리올라허타고 할멈을불너네여 그녀년의성이 무엇인가 무러보
라할앗더라 로파가 흘참만에 단어나오더니

(마) 에구이상호셔라 성씨는 서방님께셔 정답으로 무르시면 넘오 즈미가있
스실나구 할멈다려 무러오라셔오

(갈) 그리무러보닛가 성이무엇이라고 할던가

(마) 성이 박씨라고 할디다 찌디는말인지 알슈업셔도
출영이가 두형을도라보며

(갈) 여보게 박가라네

(두) 박가라고히오

항더니 출영에 입을 빌여부업시 즉점으로 로파다려

(두) 여보게 덩녕 박씨라고 할던가

(마) 덩녕이지 늙은것이 량반압히 거짓말올나구오

(두) 그리면 그아씨친당이 충청도인가 엿주어보게

로파가 눈이둥그리지며

(마) 더서방님씩셔 아마그아씨를 알으시나보다

(두) 내가그아씨를 알지는못하네만은 짐작할일이잇셔 그리할네

(마) 에그저런변보아 스름이숨어 살지는못한단말이 썩올치 더서방님씩셔 그

아씨일을 엿더케 짐작할실싸요 아모려나 잘되얏슴이다 덕서방님께셔 아씨
리력을 모르셔서 궁금히하시더니 인제는 시원하시겟슴이다 제가지금드러

가 즈세히알고 나오겟슴이다

로파가분주히드러와 박씨를향하야 아씨성씨가박씨지면 친당덕이충청도호닛

가

박씨그쇼리를드르니 가슴이덜적니라안지며 속마음으로

내친당이 충청도인줄은 더마누라가 엿더케알가 나여괴와잇는것을 몹슬놀
들이 필경 슈쇼문하고와셔 친근을향나보다 만일그다경이면 내가 속절업시

죽을뵈게 도리가업구나

호고런연하

(박) 여보 그것은웨무쇼 이덕에엇의셔 손님이오셨소

(마) 손님은 오섯셔야 아모일업슴니다 이덕서방님 처남되시는 서방님이셔요

친당덕이 충청도는 충청도오닛가

(박) 그량반덕은 엿의계신가오

(마) 더물건너 감은들이람이다

(박) 내친당은 글세웨무쇼 나논어려셔 부모를이별하고 일가스집에와 같이엿

스닛가 천령이 어디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오

(마) 아씨는 공연히 더러시지 번연히 충청도에 천령이 계시줄을 알고 엿주어 보난디 아모의 려할 것 없습니 다 바로 말씀을 하시오

(박) 글썄웨이러케 달게 웃쇼 말을 시원히 하시오
(마) 아씨는 어찌 알음닛가 사랑에서 불르시기에 나가닛가 서방님께 서쳐 남 되시는 차셔 방님과 무슨 리약아를 하시며 아씨 천정이 충청도이신가 엿주 아보라고 하시기에 말씀이야요 바로 일너 주시면 무슨 관계잇습닛가 아씨께서 이덕에서 살으시면 그 서방님과 남이나 달음업스실터이니

박씨가 로파의 그 말을 드르니 천근철회로 덜미를 치난듯 정신이 아즐하야 말을 얼뜻뜻하다가 간신이 떠더기를 내천정은 충청도가 안인디 그량반이 아마 잘못 알으섯노보오

로파가 입맛을 썩々다시며

에그성가시러워라 그 서방님은 공연히 오셔서 그리 잔소리를 하시지 아씨 천정은 알아 무엇할터이니

근소리를 중얼중얼하다가 순공치 못흐 음성으로

(마) 똑바로 아조말씀하시오 늙은나 다리 떠러지겟슴이다

(박) 무슨 말을 똑바로 하라고 졸으오 내가 무슨디스르 천정을 속이겟쇼

로파가 말지 못하야 그티로 나아간뒤에 박씨가 혼조싱각을 하야 본즉 조그천정을 차씨가 아논것이 심이피이도하고 마누라 말리심상치안어서 믿음에 들기를

어좌어우에 내몸이여기잇사는 셈씩업시 욕을 당홀터이니 가다가 죽더리도 진작도 망을 하는 것이 상척이다

향고 뒤문을 감안이 열고 울구멍으로 빠져서 두류먹을 불싹 쥐고 산곡으로 다라나 논디 별안간에 이편저편에서 난디업는 사름들이 우루우루 달려드러와 박씨를 탁 붙잡으며

이게 웬일이야오

박씨 삼작 놀나 횡도라보다가 그즈리에 폭업드러지며

에구어머니

그날구두쇠가 구씨의 심복이되야 박씨 부인을 러워다가 산중에 다니려 다투코 박씨를 더러다 살기로 구씨를 돈을 주고 종로에와가다리는 무뢰비에게 동지를 하려 갖다가 급기와 본즉 종적이 업서졌는지라 무뢰비는 구씨에게 샴과 취지향양으로 저다위를 호고 구씨는 구두쇠다려 조하통간이라고 은근하야 표를 하니 구두쇠가 견디다 못하야 한달다 짐을 두고 사면각처로 도라 단이다가 엿더케 연비연비 하야 도망군이 너편네 하나히서 산감막골와 잇다는 소문을 듣고 무뢰비축이 삼명을 다리고 감막골을 오기노히스나 분명히 모르고 선듯드러가 말하기가 어

러워서 집뒤산꼭에 은신을하고 가만히 동정만 보는데 었던녀즈가 갈씨에 집을 구명으로 나와서 황황히 다러나온것을 즈세히 녀여보니 이곳박씨라 구두쇠가 군호를호야 여러놈을불너 다리고 뛰여너려가 붓잡은것이라 박씨가 간신히나 오는말로

여보게아범아범이나와 무슨불공터던디수가잇서 이디경을호나 구두쇠가 박씨의여기를 축켜잡아 쓰을며

여보게는 다무엇이야 이왕에는 상하지분의가 잇스닛가 아모리케호야도내가 밧았거니와 지금이디경에 썩러진소리가 웬안이 셤운슈작이야 잔소리말고 어서가 공연히곤경만 더당홀것이니 내가그동안의막히게 부딕긴싱각을호면 송곳니가 방석니가되도록 말니는디

곳치온놈 한아이 구두쇠를 지축호는말이

이사람 깃설작작호고 어서가세 공연히 동리사람이 알고 쫓츠오면 성가시러 위

구두쇠가 열을버럭너며

(구두쇠) 깃설이안이라 분하지안단 말슴이오 그동안 저부딕긴일을 생각호야 보십시오 들머는 마남에게 죽일놈살닐놈 소리를듯고 나오면 당신네에게 시시로 부딕기니 세상에사람이 살노듯이란말이오 무옴디로호면 저분네를

엇의시큰호도록 죽여너도 무옴이시원치를 안이호겔쇼

그자들여서 티여드러 박씨를축켜들고 그산넘어로 넘어가는데 박씨는 더스호고 안이가라커니 그놈들은 위력으로 박씨를축켜살거니 한층힐난을호더라 춘영은즈그쳐남을 반가히맛나 즈미잇게담화를호며 로파식여 박씨의천정이충 청도인가무러보라 드러보니고 하회를기다리며

(갈) 즈네가 그녀인의천정은 었더케짐작호나 그것참신괴호지안은가

(두) 감안이게시오 할멈이나오거던 그디답을 드러보아서 리약을호지오 거미귀에 로파가나와서 박씨가바로말을 안이호더란말을호고 안으로 드러가 더니 되집어금히뛰어나오며

(마) 서방님이 일을엇더케호닛가 그아씨가 었의로 도망을호얏습니다

(갈) 어응 도망을호다니 그엇의로도망호

호며 허동지동 신발을신고 안으로뛰여드러가는데 두형이도 곳치싸라드러갓 더라

(마) 대문으로는 덩녕안이나갔는데 었의로갓슬가오 가도얼마를 못갓슬터이야 금방일이닛가

(갈) 여보게 대문으로만 안이나아갓스면 었의로갓겔는 더뒤스간속 광속마루 밧을 고로고로차쳐보게

로파가 발바탕에 흙이 안이 못게 이리더러 뛰어단이며 찾다가

(마) 에그서방님

(갈) 웨거괴잇나
(마) 안이올시다 이것좀와 보십시오 여의구명을 썩르고 빠져나갔습니다

(갈) 엇의 엇의로 나갔단말인가
공고 급히와서 로파의가리치는 올라리구명을 이리저리삼혀보더니

(갈) 참말그리나가네그러 흥어리석은것이로구 제가 가면 얼마는 갖슬부 여보
게 할멈급히나아가서 퇴일이 좀 얼뚱부르게

(마) 예
공고 다름질을하야 나아가더니 퇴일이 라는자드러와 출영이압해와서며

(대) 서방님볼너 게십시오

(갈) 이이급호일이잇다 여러말을할것업시 지체말고어서나아가 동리장당
여섯만달이고 스면으로 쫓츠가보아라 퇴에달여왔던 녀편네가 금방뒤을스

구멍으로 빠져도망을하얏구나
대길은 여력이파인공고 성미가나면물불을해아일줄 모로난위인이라 재상전의
분부를듯고 걸싼거름으로 미산양순 쟁모리하듯 스면으로 수식을하다가 집뒤
산곡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노것을듯고 쫓차드러가니 웰너편네한아를 가온디

에넛코 남조스오명이 한디덩어리가되야 야단법석을하노지라 조세히삼혀보니
그녀조가 분명히축동에서 목미엇든 녀조이라 덤혀노코 여러사람을 잡아헛치
며

아씨웨예와 게십시오 어셔드러가십시다

구두쇠가 사나운 눈찌을 도치안케드며 퇴이웬량반인디 아스가자마자호오
대길이가 마조 눈을몹서드며

이놈아 웬량반은 알아무엇히 벌놈다보겟다
공고 손짓을 두어번하며

여보이리들와서 이놈을 형실좀잡시다

구두쇠가 박씨의팔을노코 대길에게로 달려드러 먹살을쥐고 쓰귀를치려드니
대길이가 마조구두쇠의 먹살을쥐고 서로업치락 뒤치락하노디 그동리장정심

여명이 와르르모혀드는 서슬에 구두쇠와 조치왔든놈들은 겁을먹고 모다도망
공고 다만구두쇠 혈혈단산이 심여명장정의 덤뵈난것을 제아모리 우악하기로

덕당하는슈가 엇지잇스리오 굵쌀황소모양으로 쿵하고나가잡바지니 제각기
흔번씩공골나차는것이 부지중팔다리가 상하고 디강이 얼골이쳐지고 터져서
류혈이 량자하얏더라

박씨는 그서슬에 엇더케놀났던져 다만번번설기만하고 죽은듯이잇는디

동리항인들의 고급한 말을 듣고 춘영남미가 급하올나 가보니 녀조항나는 들며 축쳐안졌고 대길은엇더놈하나를 죽어라고 막써려주는지라 두형이가 소리를 버럭질너서

(두) 이이감안나잇거라 웬사름을 그러케써리느냐

(대) 저의뒤에 계시던아씨를이놈이 웬놈인디 막가지고 잡아살음이다그랴

(갈) 그놈이 웬놈이란말이나 사정보지말고 그놈을 사못박살을항여라 이놈소식을을 모르고 웬놈인디 남의집에잇는 녀인을것침업시가지고히

(두) 형님형님 그럴일이안이오 그놈소위를싱각하면 디막에죽여도 시원치안

으시것소만은 이일이필경 제춘추로한것이 안일듯심으니 더부인은 계시는 처소로도로 가시게하고 그놈을잔뜩 목거압세고 짐으로가서 문초를항야보십시오

(갈) 즈네말이 올은말일세 이이디길아 그놈을에서 빼릴것이안이라 참바로잔득목거압세고 디으로드러가자

대길의와 여러장영이 싸귀흔변식은다치고 발길흔변식은다항며 구두쇠의두족지가 마조닷도록 잔득목거 죽불이디항게 사랑압호로 디려다가 쓸압해다가살녀노앗더라

춘영이가 무슨말을 무르라항는디 두형이가 썩나안조며

(두) 형님 감아니게시오 내가좀 무러보겟소

(갈) 즈네랑은 천천히무러보게 내가분히못견디겟네

(두) 압만분항셔셔도 좀참으시오 내가색문초항야 볼스건이 잇슴이다

항고 별로음성을 놓히집으도 안이항고 나죽나죽할말로 너는웬놈인디 성군작당들 항야단이며 남의좁부녀를 로략항야가라항고항야

는다

구두쇠가 아모물씩모로고

(구) 밤이났곳흔세상에 남의좁부녀를 로략할리가 잇소 디은 누구신지모로고

니와 남의일을 즈세알지도 못항고웨참섭을 항시오

(두) 웨참섭을항느냐 참섭할만항닛가 참섭이지

(구) 뒤에서 참섭이 무엇이란말이오 이디이뒤대인줄은 모로겟소만은 도망흔녀편네을 임자가와셔 차져가는것을 웨상관이란말이오

법은멀고 쥬먹은곳갑다고 여러시덤뵈여 이디경을항닛가 내가독불장군으로

당항기는 항야소만은 대에서무경계로 썩리면맛고 죽이면죽기는 할터이나 이놈도아조무밋곳치뒤가 아조엇는놈이안이니 무슴디로항시오

(두) 이놈아 도망군이라니 네집도망군이란말이나 네성명이무엇이며 더녀편

(구) 나와 었더케 되는것은 덕에서 알아 무엇하랴오 아모러던지 더너편네가이
덕에는 상관업지오

(두) 그리 상관업스면 었더한말이나

(구) 상관업난터에 더너편네를 다러가거니 슬어가거니 무슴알안곳이되야나
를붓드려다노코 이리시오

두형이가 눈을싸것어붓치고 마루바닥을 발로탁구르며

이놈아모리 무지흐놈이기로 뱀을모로고 스부가부인다려 저너편네 이놈내
가 너를누구인지모로고 못논졸아나나

구두쇠가 두형에 넘겨잡는말에 제죄는잇고 괴운이 절로지드러져서 아모말도
못하고 고기를숙이고 안젓는디

두형이가 또흔번덜미를쳐서 못는말이라

(두) 이놈네가목숨을 부지하라거던 일호괴망말고 바로고할여라

(구) 내말은 다알으신다면서 무를것이 또업슬터이오 만은 이덕은 뒤덕이사
고 더부인은 무슨스로 덕에다가 갖다두어게시오

(두) 종서도 바로말을못할가 오나가마니닛거라

두형이가 춘영을도라보며
형님 할머이리좀 불너주시오

로과가 두형이압해와져나 두형이가 일으난말이라

여보게할멈 조네드러가져 그아씨 이리좀나오시라고엿좁게 괴왕이디경되신
터에 너외하실것이잇나 나오셔서말슴을바로하셔야 더놈에버릇을 단단히

라치겟네

로과가드러가 그말을전하니 이씨에 박씨는구두쇠에게 붓들녀괴가막힌소조를
당할다가대일이가 동리사름모와되리고와서 일변구두쇠를 썩린다일변조기를

갈씨의집으로 도로되려오니 오나가나므음이노이고 시원상쾌할것은업스나 당
장피약무도흔 구두쇠를 제어하야주는것은 얼마쯤다형호중 그놈을문초하난

디 그놈이바로 도설을안이하고 조괴에게 모욕이점점더흐 모양이라닛가 므음
아들기를

에라이다경에 종적을찾았속이라다는 저놈설치를 못할모양이니 내가넉일
죽을일이 또싱길저라도 나아가져 나 의력스를바로 말하는것이올라

하고 마누라의 뒤를싸라 사랑들에게가져서 누가물러블여부업시 구두쇠을 너려
다보고 하는말이라

(박) 이놈구두쇠야 말드려라 너도이놈사름이지 네가나와우슨원슈로 이디경
을하나나

(구) 여보누구다려 이놈더놈하오 너가잘못할것이 무엇이야 식인사름이 다짜

로잇는듯 아모리이집 주인량반에게다 등을치고이리히보오 내가홀노릇슬못
고고마나 나논뒤에가면 마님께호령듯고 나오면당신게이모양으로 육을먹어
야을소

(박) 이놈아 이런하의몸슬놈아 내가너를더접하야 허소하기관 나쳐나먹은것
을 하디후기어려워 그런일이지만은 이놈너부터 나를물나보고 말씨라던지
형위를흥부루는듯 위뒤하야줄 사하기있나

(구) 여보당신은 너에게위뒤홀사늬이 업다하면서 너게는더접을못바다홀이오
당신이 그뒤며느리로 잇는터갓흐면 니가 이왕더접을하야 주겟소만은 이디
경이되야 지금늬놈에 계집이되얏는지 모로난디 너가무슨더사로 소인소인
할줄알아습더닛가

(박) 이놈 늬놈의계집이되다니 저런죽여도 죄가남을논이 또엇의잇나 이놈더
령감해서 나를무디공산속에다 다려노아 무뢰비에게 육을뵈이라고 하시더
나 충청도천명덕으로 다려다쥬라호섯지

(구) 여보아모리 너편나라도 정신을찰이오 령감너외분이 충청도로교군을호
야다두라고하시느것을 늬임의로 산속으로다리고 갓슬듯심소 아모리초마두
른너편네기로 엇지면소견이 더러케업소 공연하여림업서이리고 엇지말고
진작어서갑시다 공연히이딕서지 큰코닥치게말고서

(박) 이놈아 너가죽던지 살던지무슨판계가잇서 이딕서지큰코를 다친다하며
또난디가 아조죽기전에는 너논려씨딕하인놈이오 나논네상던은상던인디 이
러케히야 네도리가홀사

(구) 당신이나계상던이 무슨안이쇼운상던이야 서방님안이계신통안에 못셔방
을함부루하다가 조식서지티오고 쫓겨나온위인이
박씨가괴막혀 두눈에서 눈물이적々흐르며

이런하에 못된놈아
하더니 다시말을못하고 그자리의넘어져 괴적을흔다
출영이가 그광경을보다가 눈이둥그리지며

에구이것큰일났고 사람이당장에 상하는구나
일변써머여다 안으로드려다뉘고 팔다리를 주물넌다 빅비항을살려넌다하늘
디 두형은 구두쇠를 잔뜩걸박하야 미아달고 구초를일일히박는다

(두) 이놈네가 려승지딕 구종놈이안이나

(구) 예 그러하오이다

(두) 웨그리시오 지금괴식하시던부인은 너의딕아씨지

(구) 이왕에는 우리딕아씨지만은 지금은안이오

(두) 엇지히셔 안이나

로잇는듯 아모리이집 주인량반에게다 등을치고이리히보오 내가홀노릇슬못
고고마나 나논뒤에가면 마님께호령듯고 나오면당신게이모양으로 육을먹어
야을소

(박) 이놈아 이런하의몸슬놈아 내가너를더접하야 허소하기관 나쳐나먹은것
을 하디후기어려워 그런일이지만은 이놈너부터 나를물나보고 말씨라던지
형위를흥부루는듯 위뒤하야줄 사하기있나

(구) 여보당신은 너에게위뒤홀사늬이 업다하면서 너게는더접을못바다홀이오
당신이 그뒤며느리로 잇는터갓흐면 니가 이왕더접을하야 주겟소만은 이디
경이되야 지금늬놈에 계집이되얏는지 모로난디 너가무슨더사로 소인소인
할줄알아습더닛가

(박) 이놈 늬놈의계집이되다니 저런죽여도 죄가남을논이 또엇의잇나 이놈더
령감해서 나를무디공산속에다 다려노아 무뢰비에게 육을뵈이라고 하시더
나 충청도천명덕으로 다려다쥬라호섯지

(구) 여보아모리 너편나라도 정신을찰이오 령감너외분이 충청도로교군을호
야다두라고하시느것을 늬임의로 산속으로다리고 갓슬듯심소 아모리초마두
른너편네기로 엇지면소견이 더러케업소 공연하여림업서이리고 엇지말고
진작어서갑시다 공연히이딕서지 큰코닥치게말고서

(박) 이놈아 너가죽던지 살던지무슨판계가잇서 이딕서지큰코를 다친다하며
또난디가 아조죽기전에는 너논려씨딕하인놈이오 나논네상던은상던인디 이
러케히야 네도리가홀사

(구) 당신이나계상던이 무슨안이쇼운상던이야 서방님안이계신통안에 못셔방
을함부루하다가 조식서지티오고 쫓겨나온위인이
박씨가괴막혀 두눈에서 눈물이적々흐르며

이런하에 못된놈아
하더니 다시말을못하고 그자리의넘어져 괴적을흔다
출영이가 그광경을보다가 눈이둥그리지며

에구이것큰일났고 사람이당장에 상하는구나
일변써머여다 안으로드려다뉘고 팔다리를 주물넌다 빅비항을살려넌다하늘
디 두형은 구두쇠를 잔뜩걸박하야 미아달고 구초를일일히박는다

(두) 이놈네가 려승지딕 구종놈이안이나

(구) 예 그러하오이다

(두) 웨그리시오 지금괴식하시던부인은 너의딕아씨지

(구) 이왕에는 우리딕아씨지만은 지금은안이오

(두) 엇지히셔 안이나

(구) 우리뒤에서 남되야나왔스닛가 안이지오
(두) 남되야나오다나 너의뒤성방님과 스명과의를향앗나 철거지악이잇서 너
쫓차느냐

(구) 서방님은 동경가 류학하시논디 스정과의를히오 서방님 안이게신동안에
무슨짓을히난지 이를비엿다가 락티싸지향앗스잇가 그죄로 너쫓차스면 동으로가거나 셔으로

(두) 아히비엿다 락티향것을 쫓스이알며 너쫓차스면 동으로가거나 셔으로
가거나 모로난체 할것이지 너는무슨곡절로 차와셔 가즈마즈향노

(구) 남에스정은 즈제알도못향며 웨일이우르시오 차즈을만흔 스정이잇스닛
가 온것이 지오

(두) 무슨스정이야 쫓바로말을 못할터이나

(구) 스정이야 내가그분향고 별달은 스정이잇겟소 우리뒤 령감너의분말숨이
이근체에 잇게말고 멀죽이쫓차버리라고 분부가지엄향신잇가 여귀잇다는소
문을듯고 멀죽이보너라고 차즈와셔 가즈고향앗소

(두) 이놈남의집구종놈이 말버르스를 썩스향게향며 종시도거짓말로 속여말을
히이놈말죽안이보너란다향며 교구웨이넘어산중에다 너려노코 웬놈들을부
르러스던구

구두쇠가그말에 뒤가설이닛가 성떼로바락을올다

(구) 내가뒤에게 마져죽기받게 더향겟소 남의너편네 동으로가던지 셔으로가
던지 차져를가던지 안이차져를가던지 도모지뒤에서 상관이무엇이오 뒤의
지판관이되야셔 지금지판을 향논모양이오 이놈아려케 혼즈붓들너왔스닛가
아모러케향야도판게치를 안을듯십어 이리향오 남을무단히싸렸스니 구타를
도자져향고 또내가죽으면 디살할노도잇습닌다

출영은 성미가 가라안절씩난 혼엽시가라안고 붓풀씩는 한엽시붓풀터이라 구
두쇠의말을듯다가 분심이팅중향야 와락디여들며

(갈) 여보게 그놈을그러케 향다는 회설슈설만향지 바로도설은 안이향겟네
이이디갈아 금갑도로귀양을가도 너가갈거니야 그놈을도흔취초리로 피가철
철호르도록 썩려라

티길이는 구두쇠와 무슨원슈나진듯이

예 1

향고티담 한마디를향더니 엄지손가락스흔 썩나모가지를 한아름은썩거다가들
식마조슈아들고 달려드러 구두쇠를 썩러가 시작을향나 그향악향구두쇠도미
에못이괴여 살너달나고 벌기를사작한다

살여좁시오 제가죽을흔이 드러셔뒤애을 왔슴이다
법들이지금스치밥아셔 범죄자를 정처향논스스회터면 조심만은 갈출영이카구

두 죄를 죽시 법소로 고소하여 엄중신문한후 죄를상당히 다스리게 할것스런만은
그때난 법이 좀어둔척이라 관청으로보내었다는 무슨중병이 또싱길난지 추측키
어려워셔 스스로 신문을하는것이라

(갈) 이놈너를 소당은 법소로보내여 엄중히 다스릴일이다만은 네뒤보아주는
사람이 여러인모양인디 엇지될는지 미을슈잇느냐 나종에는 엇지되었던지
너긋흔 영문모로는놈을 죽이고야 말러이다

(구) 살너죽시오제가바른대로 다고하오리다
(갈) 오- 일호은휘말고 다고하여라

(구) 저는아모죄도 업습니다다 상연의심부림을 따름이올시다

(갈) 이놈아 네발명은고만두고 어서말을히라

(구) 예-제가려승지닥에드러가 구종거행할지가 올찌지 열히올시다 그닥에
오리잇슨연고로 그닥에서도 티소스를 모다저를식어시고 쳐도그닥일을물
불을헤아리지안코 거행하는티아올시다

(갈) 그러셔

(구) 그닥며느님이 쇠어머니마님눈에나셔 미스를미워하시는데 서방님께셔는
공부를올려 동경에가게시고 안이게신디 혼즈게신며나님이슈티를 히드람
이다

(갈) 슈티흔것은 무슨징거가잇던가

(구) 감고처럼 편치안은디 꾀독산을썩셔더니 나티를히드람니다

(갈) 나티흔것을 너도보았나 똑바로말을올렸다

구두죄가 주져주져한다가

(구) 제가 보지는못하였습니다만은 덕이회중추월이가 나와이악이항기를량
반도형제가 그러니마니하며 아씨나티흔것을 마님이천히보시고 소문날갑아
휘지부지 하였다는것을듯고 아씨저적이 낮분줄알았스나 덕문년에잇셔야
상상체통에 엇질슈업셔 소인소인하였더니 하로난마님씩셔 종용이부르셔더
나이의네가 심여년덕사람인디 무슨말을못하겠느냐 아씨인지누군지 락티흔
소문을 너도알겠구나 무지막지흔 할천비에잡도안이오 량반에덕에서 남이
붓그러셔 어디편디겟느냐 천덕으로 쫓차보는지니 철모르난서방님은 그런
줄은모로고 도로다려오겟나니 펼쳐펼쳐차자단이는일이 싱길러인즉 아조후
폐을업시항자면 아는듯모로는듯 아조엇던놈을 너여맛기여 말죽이가서살게
할야할터인디 너여맛기는 것도그러코나 무슨티스로 그놈의도흔일만할곡
절이업스니 네가스면듯보아 돈양아두독흔놈에게 전천이나뻗게 주션을올라
할시기에 스면련비를올야 식문안에서 유귀전초인보난 최가와 의논할았더니
최가가돈릭원을너여 팔십원은마님께드리고 이십원은중비로 업셔졌는디 아

씨다려는 천명을 가라고 속이고 서산 넘어 오난길 산곡으로 왔습니다

(갈) 그리는 왜왔던고

(구) 최가다려 일을 기를 이 다음에는 엇더케하던지 아즉 멧히난 언의 시골 가서
썩빅여 살게 할라 호얏더니 최가 말이 제고 양이 양슈고든골 근처이니 그리로 되
리고 가 살터이라 호읍기로 제가 약속하기를 짜그러면 동문밖큰길로 갈성각을
말고 서문밖그로나아가 이리더리 혼산중에다 교군을 니려 놀것이니 장덩멧
명을 미리더리고 근처에와등티 호얏다가 교군니려노코 알게 할것이니 마음
티로 처치 할라 호얏는티 아씨가 엇더케 눈치를 취엿던지 언의 틈에 도망을 호
얏습니다

(갈) 그리서 예는 엇더케 차와와서

(구) 그날 밤이 들도록 그너른 산스골을 참빗질 호듯 찾다가 인히 못츠졌는티 최
가는 저를 속엿다고 돈을 도로니라고 야단을치고 마님은 변변치 못히 네가 일
엇스니 당장 츄저너나 최가의 돈을 네가 무러 주거나 할라고 겨정을 호시니 저
는 독틈에 처인 당판이 되야 굶도저도 못호더나 어젯게 자문밖과 실장스한아
를 친호야 말말뒗해 그 근처에 호도망군이 지나가는 거를 보았는나 호얏더니 그
자가 말하기를 저와 동리에 는 업셔도 전지전청으로 드르닛가 서산감악스골
동리 갈셔 방집에 웬도망호는게 짐을 붓잡아 두엇더라 호기로 엇지 반가온지 즉

시 최가 다려 말을 호고 스름사오명을 다리고 왔는티 바로 드러섰다는 필경 겁
히 감초고 싸도 안이 되일 듯 십어서 뒤동산에 틈틈이 숨어잇서 감안히 동정만 보
며어린으 허만 맛나면 돈을 주어 쟈여가며 허실을 무러보자고 호얏습더니
그교티에 뒤뒤울구멍으로 난티 업는녀편네가 나와 다름질을 호기에 조세히 살
펴본즉 이는 곳뒤아씨기로 눈이 번쩍씩여 구호를 호야 여러사람을 더리고 쏘
츠가셔 붓잡고 엇지 예와잇는나 가즈마즈호는츠에 이모양으로 잡하여 왔습니
다

그제는 두형이가 다시나안지며

(두) 올치 그만호면 알겟다 너그뒤에잇던 은네도 알겟지

(구) 알다썩이 오닛가 은네는 그아씨 교전비로 그아씨 심복지인이 올시다

(두) 은네는 엇의로 갔노

(구) 네엇의로 간것은 모로겟습이다 만은 아마뒤에서 엇의로 시집을 보니시라고
호는티 중로에서 가로시여 도망을 하얏다던지오

(두) 오니 나호흔 우리호놈의게 의리를 말호여디가 잇나나 만은 아모리 무식호
놈이기로 상면은 말고라도 사부뒤아씨티 접을호들 말씨를 그러케 호부호호는
놈이 엇의잇단말이니 소당은 너호놈 당장 박살을 호야 빅샤름천샤름 징계를
호일일이 되 특별히 호셔호는 것이니 나아가잇스면 다시 일을 말이잇다

하고 춘영과 무슨의론을 한참하고 구두쇠를 하인에 집에다 붓잡아두고 두형이 춘영다려

(두) 형님그부인이 형님덕에와잇기가 천만다행한일이올시다 니가이번에오기는 다름이안이라 그부인을차즈은일이야오

(갈) 조네가 그와무슨관계가잇길니 이러케차즈와단말인가

(두) 니말씀을 차례로드르시오
하더니 조과동리에 리평보라는자가사는데 려승지부인과 처분잇는말로 은네가저의상전 박씨부인천정을 차자가라고 미마진다리를살고 동작이를건너방황하던말로 리평보가 맞춤보고 제집으로 되려온말로 구씨의편지를 은네가슬몹이받아보고 박씨부인이 천정으로못가고 중로에서타쳐로붓잡혀간 형편을알고제가죽기훈하고 차즈보라는데 리가가 늦치안이야 움치고쉬지를 못하는 형편으로 조과를잡짓사피여 스정을말하고 제상전거취를알아달라고 부탁호스실을 한마디세늦치아이하고 낮々치설명하니 춘영이가 샘짜놀나며

(갈) 어이네가 그특호사람인데 그러나조네가 그부인네 집에잇는것을 엿지알고 차져와나

(두) 집에서떠나서 문안문밖그로 드나들며 아모리담문을흔들 무빙가가구가되야 무수호탄을흔는차에 마침언의술집에서 교군선들이 술을먹고 짓거리논

소리를 귀스결에 드르닛가 박씨부인리약이가 조세호종적은 무렷스나 수습일전일이라 역시남디문입남인고로 교군너려노앗던곳 형편이나보조고 차즈는 이념어산곡사지왔다가 마침귀족장을맞나서 형님덕에 도망군이와잇다는 리약을들듯고 동행을하야왔다니 구두쇠를맞났습니다

(글) 니가그동안 경솔리글지안이하고 이씨씨지 극공히되우호것이 잘된일일세마는 나는정신이 얼떨떨야 영문을도모지모로켓네 우리가법관이아닌바에박씨부인은 그천명으로던져 식집으로가게하고 구두쇠도 노아보닐것이지엇더케호계획으로게잇스라고 붓잡아두었나

(두) 형님씩말씀도하시오 내가은네에게 드른즉 박씨부인나타호얏단말이빅관무함에서 싱긴말인디만일 발명을못하면 박씨가천정으로간디도 그유상코흔성미에 누명을 무릅쓰고 살아잇슬이도업고 우리로말호디도 당초에알지를못했스면 이어나와 궁금흔들 그하회를조세 처근하야보지안이 할슈업는중 유독나는 은네의 철성으로 부탁하는바를 드른이상에 등한이지낼슈업스니 형님은감안에 제셔셔 구경만 호심시오

(갈) 허허조네뜻이 장히은은일일세 조네뒤스비는 니가힘드난것을 볼게하고보아줄것이니 엿의박부인에 설원을 시원하게 호번하야보세

봉선화상권종

김순각

봉선화상권종

김순각

本書林發行及專賣書籍之如左其外種新舊書籍皆具備外特廉價大發賣言

日韓會話辭典 洋裝

日語雜誌 自一號 洋裝

新撰萬歲曆 對照曆 洋裝

新朝鮮分道地圖 附風景圖 洋裝

初等算術教科書 洋裝

程代數學教科書 洋裝

程平面三角法 洋裝

程尺牘完編 洋裝

朝鮮語文法 洋裝

論語集註 洋裝

中庸集註 洋裝

大學集註 洋裝

正本詩傳集註 洋裝

全書傳集註 洋裝

全周易集註 洋裝

精選算學 并解式 洋裝

中等動物學 洋裝

修正日語大海 洋裝

重訂算學通論 洋裝

日本語學音語篇 洋裝

改正日鮮備門尺牘 洋裝

土地測量術 洋裝

漢鮮文新玉篇 洋裝

日日斗力 (教會丹)

全再定價四十三錢

各十錢

九十錢

六十錢

各九十錢

九十錢

五十五錢

一圓

四十錢

一圓

一圓

二十五錢

十五錢

一圓廿錢

一圓十錢

一圓

七十錢

一圓

一圓

一圓

一圓四錢

一圓七錢

六十錢

一圓廿錢

五十錢

新編遊藝法 一冊 二十錢

單方新編 一冊 四十錢

九疑山 一冊 五十錢

昭陽亭 一冊 五十錢

春外春 一冊 五十錢

彈琴臺 一冊 卅五錢

碧梧桐 一冊 卅五錢

劍中花 一冊 卅五錢

兩中奇緣 一冊 三十錢

丹山鳳凰 一冊 三十錢

秋天明月 一冊 三十錢

新撰秋風感別曲 一冊 三十錢

漢日鮮新會話 一冊 三十錢

蠶室薄傳 一冊 三十錢

天然亭 一冊 三十錢

玉鬢紅顏 一冊 三十錢

洗劍亭 一冊 三十錢

錦上添花 一冊 三十錢

漢鮮文新字海 一冊 三十錢

大韓補新字海 一冊 三十錢

六仙閣 一冊 卅五錢

獄中錦囊 一冊 卅五錢

訪花隨柳亭 一冊 卅五錢

廣寒樓 一冊 卅五錢

斷髮嶺 一冊 三十錢

獄中花 一冊 四十錢

鳳仙花 一冊 八十錢

巢鶴嶺 一冊 卅五錢

兩中行人 一冊 五十錢

京城南部紫岩洞四十二統十戶
新舊書林主 池松旭白

大正二年九月十五日印刷
大正二年九月二十日發行

定價金四十錢

京城中部益洞六十九統三戶

李海朝

京城南部紫岩洞四十二統十戶

池松旭

京城西部玉瀑洞一百四十七統五戶

劉聖栽

京城南部土油洞二十九統七戶

文明社

京城南部紫岩洞四十二統十戶

新舊書林



不許復製

著作者

發行所

印刷者

印刷所

發行所